

문화방송노보

발행인 오동운
편집인 이승준
편집 송옥분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MBC 경영센터 2층
TEL 02_789_3881~6
FAX 02_782_0135
www.mbcunion.or.kr
2019년 8월 26일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끼는 선배, 후배, 동료였던

이용마와 영원히 이별했습니다.

제법 중후해졌던 얼굴이 갈수록 앙상해질 때,

카랑카랑하던 목소리에서마저 힘이 조금씩 빠지는 걸 느꼈을 때

직감은 했었지만, 막상 떠나보내야 할 때의 황망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프다는 얘기가 처음 전해졌을 때

우리는 좀처럼 실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용마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싸워왔는데 병 따위야 이겨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솔직히 했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언론 자유가 왔는데, 치열하게 토론하고 부딪치는

우리 일터의 일상에 막상 그가 없다는 아쉬움은 지금도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을 거둬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은 우리가 우선 해야 할 다짐이 있습니다.

이용마를 잊지 않겠다는,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강직했던 기자 이용마를 기억합시다.

타협하지 않았던 동지 이용마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따뜻했던 인간 이용마를 추억합시다.

흔들리지 않던 소신, 굽힘없이 실천으로 전진하던 에너지,

그런 것들을 마저 꽃피우지 못하고 떠난

동료에 대한 안타까움 기억합시다.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가 던져준 숙제 앞에 고민을 거듭해야 합니다.

슬프고 안타까워서만은 아닙니다.

이용마의 원칙과 우리의 신념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대로 이용마와 우리는 함께 견디고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2012년 170일 파업의 구호는 이용마의 뜻이자

우리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이용마의 신념, 우리도 동의합니다.

엄동설한에 쫓불을 들었던 국민을 잊지 말자는 다짐, 다시 되새깁시다.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는,

언론인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그 때의 초심, 다시 꺼내 듭시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에게 대해 실망하고 낙담하지 맙시다.

우리는 39일을, 170일을, 그리고 72일을

질기고 독하고 당당하게 싸웠던 동지들입니다.

우리 옆 동료들의 모습에서 이용마를 기억하고, 이용마를 실천합시다.



고(故) 이용마 기자 영결식 “근심 걱정 떨치고 편히 쉬시길”

복직 후 두 번째 출근. 하지만 1년 8개월 전 휠체어를 타고 사무실에 들어서던 이용마 기자의 모습은 기억 속의 한 장면이 되었다. 영정사진의 모습으로 가족 품에 안긴 채, 그가 속한 MBC 보도국에 작별을 고했다. 그의 복귀를 기다리며 비워두었던 자리에는 어린 아들들이 번갈아 앉아, 행여 어딘가 있을지도 모를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보려 애썼다. 이용마 기자의 두 번째 출근이자 ‘마지막’ 출근이었다.

고(故) 이용마 기자의 영결식은 <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됐다. 동료들과 언론·사회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500여 명이 상암동 MBC 광장에 모여 그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뜨겁게 타오르는 여름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요란한 매미 소리, 시민들의 나지막한 흐느낌이 광장을 가득 채웠다. ‘기자’ 이용마의 생전 모습과 육성이 화면에서 흘러나오자, 흐느낌은 탄식으로 바뀌었다. 영결식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눈물을 흘리며 추도사를 받아 적었다.

추모는 영결식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영결식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고인의 넋을 기렸고, 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시민들도 전국 MBC 지역지부에 설치된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한 예술가는 예고도 없이 영결식장 옆 의자에 조형물을 만들어 두고 갔다. 무생물의 딱딱한 TV 화면을 뚫고 피어난 한 송이 꽃. 엄혹한 시기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슴에 새기며 긴 투쟁을 이어온 고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했다.

고인의 마음과 몸의 긴 싸움을 옆에서 지켜본 아내 김수영씨는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암들도 함께 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했다. “잘 다스려서 더 커지지 않게 면역력을 잘 길러야 한다”는 게 고인이 남긴 메시지라는 말과 함께.

운구차가 광장을 한 바퀴 돌아 빠져나간 뒤에도 그가 남긴 깊은 울림은 한동안 시민들의 발을 붙들어 놓았다. 가시밭길을 ‘담담하게’ 걸었던 고인은 마지막도 그렇게 담담하게 떠났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선배의 말씀, 꼭 뉴스에서 실천하겠습니다. - **곽승규** ”

“아직도 잘 실감이 나질 않네요.
언젠가 선배가 건강한 보도국으로 돌아오실 거라 믿고 있었기 때문인가 봐요.
선배께서 무거운 짐, 고통 홀로 짊어지고 오시는 동안 아무것도 못해서 죄송해요. 부디 가신 곳에서는 편히 쉬시길 빌게요. - **소정** ”

“함께 일한 적도, 밥을 먹은 적도 없습니다.
선배의 글과 삶 그중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보고 들었을 뿐입니다. 세상은 과연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것조차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와서야 겨우 생각합니다.
모든 사리분별이 무너졌을 때조차 가야만 하는 길이 있으며, 그것의 가치는 바꿀 수 없음을.
고통을 대하는 강건함만으로도 세상의 비겁함을 바꿀 수 있음을.
선배가 그러하셨듯. - **조재영** ”

“이용마 선배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아프신 와중에도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시던 선배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참언론에 대한 큰 숙제를 남기고 떠나신 이용마 선배님. 부디 하늘에서 편히 쉬십시오. - **손정은** ”

“이용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참 언론을 향한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 **김재영** ”

“운구차를 배웅하려고 기다릴 때
영정 사진을 가슴에 품은 민식 선배의 모습이 멀리 보였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흘렀다.
2012년에 시작된, 어떤 사건들이,
오늘...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끝난 것 같은,
그러나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저 마음으로 새길 수 있는 말은
편히 잠 드셨으면 좋겠다는 웅얼거림 밖에는...- **서정문** ”

“선배님, 몰라보게 수척해지던 얼굴에 마음이 아팠지만
아원 얼굴 위로도 단단하던 목소리와 빛나던 눈빛,
여전히 씩 웃을 때면 너무나 한결같았던
미소로 기억하겠습니다. - **권성민** ”

“고결한 선배님의 말씀, 새기며 살겠습니다.
세상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건 선배님 덕분입니다. 잊지 않을게요.
기억하겠습니다.- **박혜화** ”

“탓하기 전에 움직일 것, 멀리 볼 것,
쉽게 비판하지 말 것... 많이 배웠어요, 선배님.
선배님, 고생 많으셨어요. - **서미란** ”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길. - **성진규** ”

“아름 없는 곳에서 편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참가자'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 **윤태호** ”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당신의 꿈,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아름다울 그곳에 있는 당신을 추모하며. - **정해령** ”

“사회 부조리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고
약자의 편에 섰던 선배.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아름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 **강경호** ”

“이런 말도 부끄럽지만
선배 떠나는 길을 보며,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저는 누가 뭐래도
‘MBC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가 저를 부끄러워할 일이 없도록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살겠습니다.
- **장준성** ”

“마이크를 들고 소식을 전할 때
그는 다소 경직된 듯 무표정한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대한 애정을
더 많이 담아내고자 하는 그의 바람이
너무도 크고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용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 **김상호** ”

“건장한 체구로 마이크 잡으시고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집회를 이끄시던 모습이
제 기억 속 선배였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선배가 지키려고 했던 가치,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김정민** ”

“선배님 눈빛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존경합니다. - **강지희** ”

“공정한 방송과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투쟁.
항상 선배님의 그 뜻을 품고 방송 제작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범용** ”

“힘든 상황에서도 늘 웃으시던 선배님 모습이 생각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이상민** ”

“‘UBUNTU(우분투)’
‘UBUNTU’는 아프리카어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함께 한 날들,,, 일들... 기억합니다. - **김중수** ”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선배님의 가르침 잊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박찬익** ”

“선배께서 못다 이룬 MBC의 정상화
저희 후배들이 꼭 이뤄내겠습니다!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길...
- **손원락** ”

“남겨주신 공영방송의 가치,
잊지 않고 지켜가겠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선배님.
-**이우재** ”

이용마,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권력 앞에 당당하고, 시민 앞에선
더 따뜻하게 더 많이 경청하겠습니다.
선배님 편히 쉬세요.
두 아들이 살아갈 세상,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 **강희구** ”

“선배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도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MBC가 더 좋은 언론사로 거듭나도록
이제는 편히 쉬시길 빕니다. - **박주연** ”

“MBC를 바꾸고, 언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그 정신 잊지 않고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한도** ”

“후배들에게 더 잘 지켜야 할
MBC를 남겨주신 이용마 선배님
그 정신과 의지 잊지 않고 잘 탄탄히
지켜내겠습니다! - **이영락** ”



“이 사회의 기득권의 탐욕과 부조리에 맞서 싸웠던 선배님,
감사합니다. MBC 내부의 관행, 나태함,
이기주의와의 힘든 싸움에서도 잘 이겨내셨습니다. - **최우식** ”

“학창시절, 선배님을 보며 기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헌신과 사랑으로 지켜내신
MBC에서 선배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 조하원 ”

“선배님이 걸어가신 언론자유와 사회정의의 길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 권태근 ”

“이용마 선배
좋은 언론을 위해 고민하셨던 이야기, 생각들 이어받아
지키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히 쉬세요. -前 YTN 후배 최윤석 ”

“이용마 선배님,
지금까지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 오미경 ”

“바꿀게요.
선배는 이제 편하게 쉬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 이춘근 ”

“아이들은 우리가 잘 돌볼테니
편히 쉬세요. - 고치원 ”

“남기신 의지와 뜻, 잊지 않고 단단히 나아하겠습니다.
세상은 바꿀 수 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허문호 ”

“하늘에서 응원해 주십시오.
선배가 바라던 세상
노력해서 조금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재범 ”

“당신의 꿈이
나의 꿈
우리의 꿈입니다.
그대 잘 가사래.
- SBS본부장 윤창현 ”

“이용마 기자! 그간 고생 참으로 많았소.
천국에서 편히 쉬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길. - 이태문 ”

“세상이 과연 바뀔까?
의심이 들 때마다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 박성연 ”

“이용마 선배님!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그 뜻
우리가 이어받겠습니다. - 이두원 ”

“아빠는 참 멋진 기자였고 사람이었다.
현재, 경재야.
건강하고 밝게 멋지게 자리렴. 아빠처럼
고맙고, 사랑합니다, 선배. - 박병원 ”

“목표를 잃지 않고 희망을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조금 늦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겨 놓겠습니다. - 강동석 ”

“이제 고난과 아픔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선배만큼 못하겠지만
남겨진 자의 몫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 김선국 ”

““MBC뉴스 이용마입니다.”
선배의 클로징 네임 사인이 그림습니다.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선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MBC뉴스 이용마”가
되었습니다. - 신동식 ”

이용마를 보내며



김낙곤 조합원 (9기 집행부 광주지부장)

2005년 3월 새벽,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용마 기자였습니다. 서울 MBC 보도국 후배 정도로만 알고 있던 터라 무슨 일인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취재현장에서 돌아오다 사고로 숨진 한 선배기자의 죽음을 저와 함께 슬퍼해주며 흐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차도남’ 이미지의 이용마는 이날 이후 제게는 참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를 다시 만난 건 2011년 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자처하지 않는 노조 지도부로 나섰고, 저 역시 광주지부 위원장으로 함께 투쟁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한 장의 사진이 떠오릅니다. 전임 8기 집행부의 이근행 위원장과 정대균 진주지부장이 해고된 상황에서 9기 정영하 위원장과 이용마 홍보국장 등 새로운 투쟁 노조가 출범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이근행 위원장은 “적설의 시간은 길고 해빙의 시간은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승리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뜻이기도 했고, 끝을 가늠하기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용마의 각오도 기억납니다.

“MBC가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때 권력에 기댄 인사와 보신주의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MBC에서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습니다.”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한 투쟁의 것

발은 마침내 힘차게 올랐습니다. 서울과 전국 19개 지부가 뚝뚝 뭉쳤습니다. 시민들의 성원도 이어졌습니다. 정권의 부역자들은 2012년 3월, 파업 선봉에 있다는 이유로 이용마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지더라도 영원히 이기는 길을 가겠다는 그의 생각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명박의 ‘공범자’들이 자행하는 대규모 징계의 칼날이 춤을 췄지만 파업투쟁은 170일 동안 흔들림없이 타올랐습니다.

우리는 잠시 패배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용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촛불이 타오르며 국민들은 공범자들을 몰아냈고 2017년 12월 그와 함께 해고자들이 다시 MBC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건 불치의 병마와 함께 돌아온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MBC에 돌아온 첫날 우리 모두에게 한 말이 그가 우리 곁을 떠난 지금, 마치 유언처럼 맴돕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된 것은 엄동설한 촛불 시민들의 위대한 항쟁, 과연 그게 없었다면...”

그분들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와 시사교양, 드라마 등에서 그 분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50년, 정말 멋지게 살았다고



한재희 조합원 (9기 집행부 편제민실위간사)

형이 떠난 날은 하루 종일 빗방울이 오락가락했습니다. 파업 때도 뭘 좀 하려면 꼭 비가 오곤 했었는데, 쓴웃음이 나왔어요. 얼마 전 읽었던 소설 한 편이 생각납니다. 마음에 상처를 가득 안은 여인이 소나기를 피하려고 낚은 성당에 들어갔다가 벽에 그려진 수태고지 그림을 보게 되는 이야기에요. 성모 앞에 천사가 무릎을 꿇고 열린 문틈으로 낮은 산과 하늘이 펼쳐져 있는 그림이지요. 비가 그친 후 하늘을 보다가 그가 문득 깨닫습니다. 그림 속의 하늘이 저 하늘, 비가 막 갠 하늘이라는 것

을. 천사는 비가 그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8년 전 조합집행부로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형의 목소리였어요. 탁음이 없는 맑은 목소리였죠. 그리고 유난히 검은, 맹랑해 보일 만큼 까맣던 눈동자도 기억납니다. 제가 느낀 형은 그저 명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저하는 법이 없고 위축되는 일도 없는 사람. 직구만 던지는 선배였죠.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게 된 건 형의 병세가 돌이킬 수 없게 된 후였어요. 패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그래도 싸워야 했다고 싸웠다는 기록을 남겨야 했다고. 형이 담담히 말한 그때였지요. 긴 파업이 끝나고 그보다 더 길고 깊은 어둠이 찾아오고, 많은 이들이 떠나간 뒤에야 전 어렵פות이 이해했던 거 같아요. 완전무결한 승리란 없다는 것을. 이겨도 깊은 상처는 계속 따라다니는 것을. 가야할 길은 그저 가야하는 것이고 세상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모든 걸 건다는 건 그저, 모든 걸 거는 것일 뿐임을. 갈수록 수척해지는 형의 얼굴을 보면서.

3년 전, 암세포가 발견되기 두어 달 전, 형이 후배들을 불러 탕수육을 사 주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싶었지만, 그날 형은 묵묵히 듣기만 했고 남아 있는 사람들 걱정만 반복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상암동 신사옥에 출근한 날에 형은 힘없는 사람들 돕는 따뜻한 뉴스를 많이 만들고 싶다고 말했지요. 갓은 풍파 속에서, 나이트 몇 개를 더 두른 듯 더 굵고 튼튼하고 넉넉해진 기자 이용마가 더 이상 MBC에서 뜻을 펼치지 못한다는 건 정말 원통한 노릇입니다.

다행히 비는 하루 만에 그쳤고 형을 안식처로 모

시는 날엔 해가 쨍쨍했어요. 마지막 목례를 드리며 땀인지 무엇인지 모를 것들을 닦아 내는데 자꾸만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7년 전 기억들입니다. 여의도공원에서 비를 맞으며 춤을 추던 조합원들. 비가 그친 파란 서울광장. 눈 쌓인 국기대 앞에서 뚱뚱한 옷을 입고 구호를 외치던 사람들. 땀을 뻘뻘 흘리며 전단지를 돌리고 서명을 받던 얼굴들. 하나 하나의 표정들. 목소리들. 이름들. 지금은 군데 군데 자리를 비운 그리운 사람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제 어쩔 수 없는 망각과 평범한 욕망과 크고 작은 이기심들이 뒤엉킨 채, 한때 함께 했던 기억, 살피주던 마음, 다 뒤에 던져둔 채 살고 있는데, 영정 사진 속 해고자 1호 선배는 7년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일과 자신의 삶에 대해 정면으로 고민해야 했던 7년 전. 이제 마주하자면 웬지 겁부터 나는, 누구나 지금보다 젊었던 시절. 모른 척 하고 싶은 그 기억들을 마흔 세살 이용마가 자꾸만 호출을 합니다.

형님. 그곳에서 자랑 많이 하세요. 제가 곰곰 따져보니, 함께 밥먹고 술잔 기울인 사람 중에 형처럼 멋지게 살다 간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형 정도면 자격 충분하니 자랑 실컷 하세요. 호탕하게. 거침없이. 나 50년 정말 멋있게 살고 왔다고 그리고 남은 사람 걱정 이제 그만하시구요. 다들 잘 견뎌내고 잘 해 낼 겁니다. 저도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떠오르는 건 뻔한 말 뿐이네요. 방송쟁이들이 일 마칠 때면 늘 나누는 말. 형은 아마 밤 아홉시 오십분쯤 매일 들었을 그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마형.

‘이용마’의 신념과 의지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MBC 기자회



이용마 기자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권력, 특히 자본권력과 사법권력의 남용을 끊임없이 비판했습니다. 언론이 권력의 도구가 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경계했습니다. 석연찮은 이유로 보도의 날을 무디게 하려는 선배와 불화했고, 견제 받지 않는 권력과 언론의 위험성을 동료와 후배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에 대해 양보나 타협은 없었습니다. 주관이 강한 기자 집단에서도 돋보일 만큼 신념과 자기 확신이 강한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에게 이용마 기자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 안 듣는 기자’라는 보도국 안팎의 평가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순박해 보이기까지 하는 함박웃음으로 상대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청바지도 썩 잘 어울렸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그의 모습은 ‘청년 기자’ 그 자체입니다.

그는 공정방송을 위한 투쟁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희생을 예상하던 상황에서 좌고우면하지 않았고, 결국 해고라는 결과로 돌아왔을 때도 후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학 박사학위를 땀고, 연구로, 강의로, 또다른 방송으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때때로 그의 확신이 부럽기도, 불안하기도 했지만, 정작 그는 단 한순간도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정권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공영방송의 구조와 경쟁매체들의 공격 속에서 희망의 단초는 쉽사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좌절의 한복판에서 이용마 기자의 투병 소식이 들려왔을 때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불의한 저들이, 모두를 대신해 싸워왔던 그 시간들이, 상처의 딱지가 당신의 몸속에서 암 덩어리가 됐다고.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완치의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잘 버텨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버텨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확신처럼 촛불이 켜졌고, 공정방송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다시 시작됐고, 다시 MBC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용마 기자를 보내며, 그의 강철 같은 신념은 ‘의지’의 다른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정의가, 공정방송을 위한 투쟁이, 이길 수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용마 기자는 행동과 말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절대악이 없는 시대, 기자와 언론의 효용이 의심받는 시대에, ‘공영방송’, ‘언론인’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정방송에 대한 신념뿐만 아니라, 의지와 노력이어야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이용마 기자가 한시도 내려놓지 않았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권력을 견제하고 다수인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 당연한 ‘기자의 일’에 대해 다시 다짐해봅니다. 복직 이후 첫 출근길에서 이용마 기자는 놀랍도록 냉철하고 차분하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침묵하던 언론을 대신해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나와 촛불을 밝혔던 국민들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권력 가진 소수보다 힘없는 다수의 약자들을 무서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짧지 않은 세월, 고난과 투쟁을 함께 해온 동료들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 가슴 속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언론을 도구화하려는 권력과 매체 환경의 변화는 계속해서 MBC를 흔들려고 하겠지만, MBC 기자들은 고민을 멈추지 않되, 신념과 의지로 이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마 기자의 두 쌍둥이 아들, 그리고 우리의 아들딸에게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MBC 뉴스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말로 펼 것입니다. “MBC 뉴스 000입니다.”를 말할 때마다 이용마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MBC 기자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마 기자 약력

- 1969년 1월 10일 전북 남원 출생
- 1984년~1986년 전주 고등학교
- 1987년~1994년 서울대 정치학 학사 · 석사
- 1996년 12월 MBC 보도국 입사
- 2011년 2월 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
- 2012년 3월 해직
- 2013년 서울대 정치학 박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 2016년 9월 복막암 판정
- 2017년 10월 저서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출간
- 2017년 10월 안중필 자유언론상 특별상 수상
- 2017년 12월 제5회 리영희상 수상
- 2017년 12월 복직
- 2019년 8월 21일 별세 (향년 50세)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요. 작년 엄동설한을 무릅쓰고서 나와 주었던 촛불 시민들의 위대한 항쟁, 과연 그게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직도 우리는 암담함 속에 패배감 속에 젖어서 어찌해야 할 지를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촛불시민들의 항쟁, 그분들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뉴스와 시사, 교양, 드라마,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2012년 우린 170일 파업을 했습니다. 무려 6개월 가까운 파업을 했습니다. 그때 기성언론, 주류언론, 우리 문제 어떻게 다뤘습니까?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파업 100일이 지나도요, MBC가 파업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우리의 당시 미통한 심정, 억울한 심정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자신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아무리 외쳐대도 이 사회에 반영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대변해주는 것일 겁니다. 그 노력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동료들입니다.

39일 파업, 170일 파업, 그리고 72일 파업, 무려 1년 가까이를 길거리에서 함께 허비하면서 싸웠던 동지들이 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MBC 구성원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내 옆에 가장 믿을 만한 동지가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든든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합적 지혜라는 게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나 혼자 잘 나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함께 빌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꿈같은 현실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7. 12. 11

복직 이후 첫 출근길 이용마의 발언 중에서